



[최상위 국어 솔루션! 김대기 4% 국어]

3  
통사론  
(문장)

통사론과  
문법 범주

[06년 9월 고3 14번] 문장에서 일부 문장 성분들을 생략하거나 보충하는 활동을 통해 '필요한 문장 성분'에 대해 탐구해 보았다. <보기>를 바탕으로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보 기>

ㄱ. 아이가 작은 침대에서 예쁘게 잔다.  
 ㄴ. 학생들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  
 ㄷ. 그 아이는 예쁘게 생겼다.  
 ㄹ. 작은 것이 아름답다.  
 ㅁ. 우리도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 ① ㄱ에는 문장 성분이 여러 개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주어와 서술어야.
- ② ㄴ에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은 네 개야.
- ③ ㄷ을 보면 부사어도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어.
- ④ 관형어는 일반적으로 생략될 수 있지만 ㄷ처럼 필수적인 경우도 있어.
- ⑤ ㅁ에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빠졌으니 서술어 '개통되다'의 주어를 보충해야 해.

[12년 6월 모평 11번] <보기>의 ㉠의 예로만 짝지은 것은 ? 2)

<보 기>

부사어는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성분의 하나이므로 대개 문장을 구성하는 데에 꼭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어떤 서술어를 반드시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문장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부사어를 ㉠ '**필수적 부사어**'라 한다. 해당 문장의 서술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동일한 '체언+격조사' 구성의 부사어라도 필수적 부사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 ① 나는 삼촌과 영화를 보았다.  
어제 본 것은 이것과 꽤 비슷하다.
- ② 인공위성이 궤도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우리는 공원에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 ③ 그들은 몽둥이로 멧돼지를 잡았다.  
왕은 그 용감한 기사를 사위로 삼았다.
- ④ 이 지역의 기후는 벼농사에 적합하다  
나는 오후에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 ⑤ 선생님께서 지혜에게 선생상을 주셨다.  
홍길동 씨는 친구에게 5만 원을 비렸다.

[13년 7월 학평 A형 12번] 다음 자료를 통해 '부사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3)

내 단짝 친구는 **바로** 은수인데, 은수는 춤을 **매우** 잘 춘다. **쉬는 시간에** 은수가 ( ㉠ )교실 앞에 나와서 춤을 췄다. 은수는 요즘 인기가 많은 **가수와** ( ㉡ )비슷했다. 친구들이 박수를 치면서 호응을 해 주자 은수는 **모척** 즐거워했다.

'바로'와 '매우'가 꾸미는 문장 성분을 살핀다.
'쉬는 시간에'를 ㉠에 옮겨 본다.
'매우'와 '가수와'를 생략해 본다.
㉡에 '정말'을 넣어 본다.
'모척' 뒤에 '-이나'를 붙여 본다.

탐구 결과
부사어는 다양한 문장성분을 꾸민다 ..... ①
부사어의 위치를 바꾸면 부사어의 의미가 달라진다. .... ②
부사어는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 .... ③
부사어를 넣어 서술어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 ..... ④
부사어는 보조사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 .... ⑤

[13년 10월 학평 A형 14번] <보기>를 바탕으로 '주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4)

<보 기>

지난 토요일에 ㉠사촌 동생이 왔다. 뭘 할까 고민하다 ㉡사촌 동생에게 미술관에 가자고 했다. ㉢지하철이 있었지만, 한 정거장이라 걸어가기로 했다.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하시며 ㉣어머니께서 용돈을 주셨다. 걸다 생각해 보미, ㉤우리가 함께 노는 것도 오랜만이었다. 다들 바빠서인지 ㉥친척도 서로 만나기가 쉽지 않은 듯하다.

- ① ㉠, ㉡, ㉣을 보니, 주어는 '무엇이 어찌한다 / 어떠하다'에서 '무엇이'에 해당하는군.
- ② ㉠과 ㉣을 비교해 보니, 서술어의 자릿수에 따라 주격 조사의 형태가 달라지는군.
- ③ ㉡을 보니, 문맥상 주어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주어가 생략되기도 하는군.
- ④ ㉡과 ㉣을 비교해 보니, 자음 뒤에는 '이', 모음 뒤에는 '가'가 주격 조사로 쓰이는군.
- ⑤ ㉣을 보니, 체언 뿐 아니라 명사절도 주어가 될 수 있군.

[13년 4월 학평 A형 15번] <보기>는 이어진 문장과 안은 문장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탐구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

<보 기>

○ 이어진 문장: 둘 이상의 홑문장이 대등하거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ㄱ. 동생은 과일은 좋아하지만, 야채는 싫어한다.  
     동생은 야채는 싫어하지만, 과일은 좋아한다.  
     (동생은 과일을 좋아하다. / 동생은 야채를 싫어하다.)

ㄴ. 철수가 오면 그들은 출발할 것이다.  
     그들이 출발하면 철수가 올 것이다.  
     (철수가 오다. / 그들이 출발하다.)

○ 안은 문장: 홑문장을 전체 문장의 한 성분으로 안고 있는 문장

ㄷ. 언니는 [그 아이가 학생임을] 알았다.  
     (언니는 그것을 알다. / 그 아이가 학생이다.)

ㄹ. [책을 읽던] 영수가 수지에게 다가왔다.  
     (영수가 책을 읽다. / 영수가 수지에게 다가오다.)

\* [     ]표시: 안긴 문장임.

- ① ㄱ과 ㄴ으로 볼 때, 이어진 문장은 두 문장이 '대조'나 '조건'의 의미 관계로 연결되기도 하는군.
- ② ㄱ과 ㄴ으로 볼 때, 이어진 문장은 앞뒤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도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군.
- ③ ㄱ과 ㄹ로 볼 때, 이어진 문장과 안은 문장 모두 중복된 내용을 생략할 수 있군.
- ④ ㄷ과 ㄹ로 볼 때, 안긴 문장은 안은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거나 명사를 꾸미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군.
- ⑤ ㄷ과 ㄹ로 볼 때, 안긴 문장과 안은 문장의 주어는 같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를 수도 있군.

[13년 수능 A형 13번]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6)

<보 기>

명사절은 명사와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다음의 밑줄 친 명사절이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지 알아보자.

㉠ 색깔이 희기가 눈과 같다.

㉡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 부모는 언제나 자식이 행복하기 바란다.

㉣ 제비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남쪽으로 떠났다

㉤ 지금은 우리가 학교에 가기에 아직 이르다.

- ① ㉠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로 쓰였다.
- ② ㉡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으로 쓰였다.
- ③ ㉢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목적어로 쓰였다.
- ④ ㉣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부사어로 쓰였다.
- ⑤ ㉤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였다.

[14년 7월 학평 B형 14번] <보기>의 예문을 통해 문장의 의미 관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나는 그를 안다.  
 ㉡. 너는 고민할 필요 있다.  
 ㉢. 방 안에 있다.  
 ㉣. 늑대가 양을 물었다.  
 ㉤. 그는 옳은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선다.

- ① ㉠ : 반의어를 사용한 반의 관계 문장으로 ‘나는 그를 모른다’를 쓴다.
- ② ㉡ : 부정 표현을 사용한 반의 관계 문장으로, ‘너는 고민할 필요 있지 않다’를 쓴다.
- ③ ㉢ : 반의 관계에 있는 문장으로 만들면, ‘방 안에 없다’ 외에 ‘방 밖에 있다’도 가능하다.
- ④ ㉣ : 피동 표현을 통해 유의 관계에 있는 문장을 만들면, ‘양이 늑대에게 물렸다’가 된다.
- ⑤ ㉤ : 관용적 표현을 통해 유의 관계에 있는 문장을 만들면, ‘그는 옳은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선다.’가 된다.

[14년 7월 학평 A형 13번]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안긴문장은 문장에서 기능에 따라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로 나누어진다. 명사절은 ‘-(으)㉠’, ‘-기’, 관형절은 ‘-(으)㉡’, ‘-는’, 부사절은 ‘-이’, ‘-게’, ‘-도록’, 인용절은 ‘고’, ‘라고’ 등이 붙어서 만들어지며 서술절은 절 표지가 따로 없이 절 전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용 령	설 명
○ 꼬끼리는 <u>코</u> 가 길다.	⇒ ‘꼬끼리는’이라는 주어를 서술하는 서술절이다. ..... ①
○ 친구가 <u>소리도 없이</u> 내 뒤로 다가왔다.	⇒ ‘다가왔다’라는 서술절을 수식하는 부사절이다. ..... ②
○ 지금은 <u>학교에 가</u> 기에 늦은 시간이다.	⇒ ‘-기’라는 명사형 어미를 사용하여 만든 명사절이다. ..... ③
○ 오늘 <u>급식을 일찍</u> 먹기는 힘들겠다.	⇒ ‘우리’라는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이다. ..... ④
○ 현재는 <u>자기가 옳다</u> 고 주장했다.	⇒ ‘현재’의 말을 인용하여 쓴 인용절이다. ..... ⑤

[14년 9월 모평 A형 13번]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가 아닌 것은 ? ㉠

<보 기>

㉠하나의 문장이 관형절로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원래 있었던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가) 민수는 열심히 공부한다.  
(나) 형이 민수에게 음료수를 주었다.  
(다) 형이 열심히 공부하는 민수에게 음료수를 주었다.

(가)가 (나)에 관형절로 안겨 (다)가 만들어질 때, (가)의 '민수'와 (나)의 '민수'가 중복된다. 이 경우, (가)의 주어 '민수가'가 (다)의 밑줄 친 관형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① 형이 숙제를 하는 동생을 불렀다.
- ② 동생은 대학생이 된 형과 여행을 했다.
- ③ 영수가 버스에 탄 경희에게 말을 걸었다.
- ④ 나는 정수가 은희와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
- ⑤ 그는 이 그림을 그린 화자의 전시회에 갔다.

[06년 10월 고3 13번]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여 ㄱ~ㄴ을 분석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

<보 기>

중의성(重義性)을 가진 구성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구성이 중의성을 가진 구성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접구성요소를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직접구성요소는 하나의 구성을 일단 둘로 쪼갠 때 그 각각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푸른 가을 하늘’의 직접구성요소는 ‘푸른’과 ‘가을 하늘’이다.

- ㄱ.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
- ㄴ.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는 한마을에 살았다.
- ㄷ.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부지런한 거북이가 이긴다.

- ① ㄱ은 토끼와 거북이가 모두 게으르다는 의미와 토끼만 게으르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중의성을 가진 구성이다.
- ② ㄴ의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에는 ㄱ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중의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 ③ ㄷ의 경우 ‘부지런한’을 고려하면,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는 토끼만 게으르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 ④ ㄷ에서 ‘게으른 토끼와 거북이’의 직접구성요소는 ‘게으른’과 ‘토끼와 거북이’이다.
- ⑤ ㄴ과 ㄷ을 통해서 중의성을 가진 구성이라도 문맥에 따라서는 그 중의성이 해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3년 3월 학평 B형 13번] 다음은 자연스러운 문장 표현을 위한 학습 자료이다. ㉠ ~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1)

- 문제는 일을 끝마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문제이다. ..... ㉠
- 나는 그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말했다. .... ㉡
- 나는 학급 회장으로써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 ㉢
- 나는 성실한 그의 동생을 어제 만났다 ..... ㉣
- 이번 주 금요일에 학급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 ㉤

- ① ㉠ : ‘문제’가 주어와 서술어에 중복되어 나타나므로, ‘걸린다는 점이 문제이다’를 ‘걸린다는 점이다’로 고친다.
- ② ㉡ : ‘소개시켜’는 불필요하게 사동 표현이 사용된 것이므로 ‘소개해’로 고친다.
- ③ ㉢ : ‘으로써’는 도구나 수단을 나타내므로 자격을 나타내는 ‘으로서’로 고친다.
- ④ ㉣ : ‘성실한’의 수식 대상이 불분명하므로, 수식 대상이 ‘동생’일 경우에는 ‘성실한 그의, 동생’으로 수식 대상이 ‘그’일 경우에는 ‘성실한, 그의 동생’으로 고친다.
- ⑤ ㉤ : ‘회의를 갖다’는 번역체 표현이므로 ‘가질’을 ‘할’로 고친다.

[13년 4월 학평 B형 15번] 다음은 틀리기 쉬운 문장에 대한 탐구 학습지이다. 과제를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

<탐구 학습지>

과제: 다음 [탐구 자료]를 [과제 수행표]에 맞게 고쳐 쓰시오.

**[탐구 자료] 틀리기 쉬운 문장**

- ㉠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여간 기뻐다.
- ㉡ 나는 주중에는 자전거를, 주말에는 수영을 한다.
- ㉢ 버스가 왼쪽으로 좌회전한 후, 정류장에 정차하였다.
- ㉣ 우리 학교는 도서관을 매일 개방하게 하고 있습니다.
- ㉤ 그 문제는 어려워서 풀리지 않았다.

**[과제 수행표]**

자료	고쳐야 하는 이유	고친 문장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올바르지 않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여간 기쁘지 않았다. .... ①
㉡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됨.	나는 주중에는 자전거를 타고, 주말에는 수영을 한다. .... ②
㉢	불필요하게 의미가 중복됨.	버스가 좌회전한 후, 정류장에 정차하였다. ③
㉣	사동 표현을 부적절하게 사용함.	우리 학교는 도서관을 매일 개방시키고 있습니다. .... ④
㉤	이중 피동을 사용함.	그 문제는 어려워서 풀리지 않았다. .... ⑤



[13년 6월 모평 B형 12번]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와 같은 문장을 수정하였다. <보기 2>의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고른 것은 ? 13)

<보 기 1>

정확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형성하는 규칙적인 문법을 잘 지켜야 한다.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등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는 경우,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등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조사나 어미를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문법성이 결여되어 바르지 않은 문장이 된다.

<보 기 2>

원래의 문장 → 수정한 문장	고려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장면은 연출된 것이니 반드시 따라 하지 마세요.</li> <li>→ 이 장면은 연출된 것이니 절대로 따라 하지 마세요.</li> </ul>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li> <li>→ 우리는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타인이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li> </ul>	(나)

- |     |     |
|-----|-----|
| (가) | (나) |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13년 7월 학평 B형 15번] 다음은 바른 문장 표현에 대한 학습 자료이다. 적절하게 고쳐 쓴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14)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됨	문에 동아리는 창작 활동과 전시회를 열었다. → 문에 동아리는 창작 활동을 하고 전시회를 열었다..... ㉠
이중 피동이 사용됨	나는 선생님께 이름이 불려졌다. → 나는 선생님께 이름이 불렸다 ..... ㉡
중의적 표현이 사용됨	아버지의 그림은 언제나 인기가 많다. → 언제나 아버지의 그림은 인기가 많다 ..... ㉢
조사를 잘못 사용함	나는 오늘 아침 나무에게 물을 주었다. → 나는 오늘 아침 나무에 물을 주었다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

[13년 9월 모평 B형 13번] ㉠~㉣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5)

부정확한 문장	수정 방법	수정한 문장
예의가 바른 사람은 오만하게 <b>대하지</b> 않는다.	'대하지'와 어울리는 문장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우리는 친구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친하게 <b>지내기도</b> 한다.	'지내기도'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정부는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했지만 해결책이 <b>되지는</b> 못했다.	'되지는'과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선생님께서서는 우리를 많이 아끼셨고 우리 또한 <b>존경했다</b> .	'존경했다'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이이의 호는 울곡이며 조선을 대표하는 <b>유학자이다</b> .	'유학자이다'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 ① ㉠ : 예의가 바른 사람은 남에게 오만하게 대하지 않는다.  
 ② ㉡ : 우리는 친구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친구와 친하게 지내기도 한다.  
 ③ ㉢ : 정부는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했지만 여전히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④ ㉣ :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아끼셨고 우리 또한 선생님을 존경했다.  
 ⑤ ㉤ : 이이의 호는 울곡이며 그는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이다.

[13년 9월 모평 B형 15번] 다음의 ㉠~㉤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6)

**◆ 문장의 중의성 해소 방법 학습 활동지 ◆**

중의성 있는 문장	중의성 해소 방법
예쁜 모자의 장식품이 돋보였다.	'장식품'이 예쁜 경우에는 ㉠ "예쁜, 모자의 장식품이 돋보였다."로 고친다.
손님들이 다 오지 않았어.	손님들 중 일부만 온 경우에는 ㉡ "손님들 중 일부가 오지 않았어."로 고친다.
언니가 교복을 입고 있다.	교복을 입는 동작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 "언니가 교복을 입는 중이다."로 고친다.
형은 나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	'나'와 '동생'이 비교 대상인 경우에는 ㉣ "형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로 고친다.
나는 웃으면서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했다.	'나'가 웃으면서 인사하는 경우에는 ㉤ "나는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웃으면서 인사했다."로 고친다.

- ① ㉠은 "모자의 예쁜 장식품이 돋보였다."로도 고칠 수 있다.
- ② ㉡은 "손님들이 다는 오지 않았어."로도 고칠 수 있다.
- ③ ㉢은 "언니가 지금 교복을 입고 있다."로도 고칠 수 있다.
- ④ ㉣은 "형은 나와 동생 중에서 동생을 더 좋아한다."로도 고칠 수 있다.
- ⑤ ㉤은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나는 웃으면서 인사했다."로도 고칠 수 있다.

[13년 10월 학평 B형 12번] <보기>의 (가)~(다)를 고친 이유에 따라 짝지은 결과로 적절한 것은 ? 17)

<보 기>

(가) 나는 그에게 곧 가겠다고 말했다.  
 ☞ 나는 그에게 곧 가겠다고 말했다.

(나) 실내에서 답답할 때에는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해야 한다.  
 ☞ 실내에서 답답할 때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한다.

(다) 그는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 그는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필요한 문장 성분 누락	의미 중복	조사의 잘못된 사용
①	(다)	(나)	(가)
②	(다)	(가)	(나)
③	(나)	(가)	(다)
④	(나)	(다)	(가)
⑤	(가)	(나)	(다)

[13년 수능 B형 13번] <보기>의 ㉠에 들어갈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8)

<보 기>

“확실한 사실은 그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주어인 ‘사실은’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어서 잘못된 문장이다. 이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또 다른 문장의 예는 다음과 같다.

㉠

- ① 회원들은 상품 구매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 ② 이 글의 특징은 길이가 짧지만 인상은 강하다.
- ③ 아들의 성공 소식은 부모님께 여간한 기쁨이었다.
- ④ 새 기계는 유해 물질과 연료 효율을 높여 주었다.
- ⑤ 그는 자신의 행복한 마음을 형언할 방법을 찾았다

[14년 3월 학평 B형 12번] ㉠ ~ ㉤의 문장을 고쳐 쓴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9)

	잘못된 문장	고쳐 쓴 문장
㉠	이는 미리 예상했던 일이다.	이는 예상했던 일이다.
㉡	나는 어제 친구와 의논했다.	나는 어제 친구와 그 일을 의논했다.
㉢	나는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을 보았다.	나는 파란 하늘을 눈이 시리도록 보았다.
㉣	이 책은 쉽게 읽혀진다.	이 책은 쉽게 읽힌다.
㉤	선생님께서서는 귀여운 따님이 계십니다.	선생님께서서는 귀여운 따님이 있으십니다.

- ① ㉠ :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중복되어 사용되었다.
- ② ㉡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적절하지 않다.
- ③ ㉢ : 문장의 의미가 중의적으로 해석된다.
- ④ ㉣ : 이중피동이 사용되었다.
- ⑤ ㉤ : 높임법의 표현이 잘못 사용되었다.

[14년 4월 학평 B형 13번] B를 고려하여 A를 고친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

A : 틀린 문장		B : 고쳐야 하는 이유		고친 문장
그는 슈퍼맨이라 불리우는 사람이다.	⇔	피동 표현이 잘못 됨	⇔	㉠
손님, 저쪽 방으로 들어가실게요.	⇔	화자의 약속, 의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르게요’를 부적절하게 사용함	⇔	㉡
그는 설레임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	⇔	‘설레다’의 명사형이 잘못 됨	⇔	㉢
주호는 나보다 책을 더 좋아한다.	⇔	비교하는 대상이 불분명함.	⇔	㉣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올해 신상품이셔요.	⇔	높임 표현이 잘못 됨.	⇔	㉤

[14년 6월 모평 B형 12번] 다음 중 수정 이유에 따라 고쳐 쓴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21)

**[학습 활동] 정확한 문장 표현 익히기**

---

[사례 1] 사람들은 쾌적한 환경을 위한 조치에 찬성하는 경향이다.  
<이유>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다.  
↳ 사람들은 쾌적한 환경을 위한 조치에 찬성하는 경향인 것이다 ..... ①

---

[사례 2] 동생은 평소에 건강을 위해 야구나 공을 찬다.  
<이유>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다.  
↳ 동생은 평소에 건강을 위해 공이나 야구를 한다. .... ②

---

[사례 3] 동물은 사람을 경계하기도 하고 기대기도 한다.  
<이유>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부사어가 없다.  
↳ 동물은 사람을 경계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기대기도 한다. .... ③

---

[사례 4]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의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  
<이유> 문장의 의미가 중의적이다.  
↳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의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 .... ④

---

[사례 5] 누구나 자기의 처한 현실에 직시해야 한다.  
<이유> 조사가 잘못 사용되었다.  
↳ 누구도 자기의 처한 현실에 직시해야 한다. .... ⑤

[14년 7월 학평 B형 13번]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2)

- ① 어제는 비와 바람이 많이 불었다.  
→ 어제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불었다.
- ② 너는 반드시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  
→ 너는 절대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
- ③ 전체가 모여 회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전체가 모여 회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④ 문제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다른 곳으로 이동되었다.  
→ 문제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 ⑤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 모든 사회악을 뿌리 뽑아 근절해야 한다.  
→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 모든 사회악을 근절해야 한다.

[14년 9월 모평 B형 15번] ㉠ ~ ㉤의 잘못된 문장을 수정할 때 고려한 문법적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3)

	잘못된 문장 → 수정한 문장
㉠	그는 양말을 벗고 바위에 앉아서 발을 넣었다. → 그는 양말을 벗고 바위에 앉아서 물에 발을 넣었다.
㉡	내가 주장하는 바는 문화 회관 건설로 주민 생활이 개선된다. → 내가 주장하는 바는 문화 회관 건설로 주민 생활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	이번 일로 우리는 불편과 피해를 입었다. → 이번 일로 우리는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었다.
㉣	우리 모두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동참합시다. → 우리 모두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동참합시다.
㉤	이 사람에게 그 일은 여간 기쁜 일이다. → 이 사람에게 그 일은 여간 기쁜 일이 아니다.

- ① ㉠ : 목적어인 ‘발을’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있어야 한다.
- ② ㉡ : ‘내가 주장하는 바는’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있어야 한다.
- ③ ㉢ : 목적어의 하나인 ‘불편’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있어야 한다.
- ④ ㉣ : 서술어인 ‘동참합시다’가 요구하는 부사어에 정확한 조사를 사용해야 한다.
- ⑤ ㉤ : 부사 ‘여간’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과 호응해야 한다.

[10년 수능 12번]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말이 ㉠에 가장 가까운 것은 ? 24)

<보 기>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이다. 즉, 청유문은 청유형 어미 ‘-자’, ‘-(으)십시오’ 등이 붙는 서술어의 행동을 화자와 청자가 공동으로 하도록 유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간혹 청자만 행하기를 바라거나 ㉠화자만 행하려는 행동을 나타낼 때에도 쓰인다.

- ① (반장이 떠드는 친구들에게) 조용히 좀 하자.
- ② (엄마가 아이에게 약을 먹일 때) 자, 이리 와서 약 먹자.
- ③ (다툼 친구에게 화해를 청하면서) 오늘 영화나 같이 보러 가자.
- ④ (식사를 먼저 마친 사람들이 귀찮게 말을 걸 때) 밥 좀 먹읍시다.
- ⑤ (학급 회의에서 논의가 길어질 때)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토의합시다.

[08년 3월 고3 학평 11번] 화자와 주체, 화자와 청자의 상하 관계에 따른 높임 표현의 사례를 <보기>와 같이 분석하였다. 바르게 분석한 것을 모두 골라 묶은 것은? 25)

<보 기>

우리말에서는 문장의 주어(주체)가 화자인 ‘나’보다 상위자이면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고, 청자가 화자인 ‘나’보다 상위자이면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습니다’ 등을 사용한다.

문장 표현의 사례	⇨	화자와 주체의 관계	화자와 청자의 관계	
아버지께서 운동을 하셨습니다.	⇒	화자 < 주체	화자 < 청자	…㉠
아버지께서 운동을 하셨다.	⇒	화자 > 주체	화자 ≥ 청자	…㉡
동생이 운동을 했습니다.	⇒	화자 > 주체	화자 < 청자	…㉢
동생이 운동을 했다.	⇒	화자 < 주체	화자 ≥ 청자	…㉣

■ ‘<’, ‘>’, ‘≥’ : 화자와 주체, 화자와 청자의 상하 관계 표시.  
 (예) 스승 > 제자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10년 7월 학평 12번] <보기>를 바탕으로 주제 높임법을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6)

<보 기>

ㄱ. 선생님께서는 학교에 계신다.  
 ㄱ'. \*선생님은 지금 수업에 계시다.  
 ㄴ. 작은아버지는 살림이 넉넉하시다.  
 ㄴ'. 작은 아버지는 살림이 넉넉하다.  
 ㄷ. 작은아버지께서는 지금 식사를 하신다.

\* '는' 비문법적인 문장 표시임.

- ① ㄱ과 ㄱ'를 보면 '계시다'를 사용한 어휘적 높임은 주체를 직접 높일 때에만 실현되는군.
- ② ㄴ의 '넉넉하시다'를 통해 주체와 관련 있는 '살림'을 높임으로써 '작은아버지'를 존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군.
- ③ ㄴ'는 주체인 '작은아버지'에 대한 높임의 태도가 나타나지 않았군.
- ④ ㄴ의 '넉넉하시다'와 ㄷ의 '하신다'가 직접적으로 높여주는 대상이 동일하군.
- ⑤ ㄴ과 ㄷ을 보면 경우에 따라 '께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대상에 대한 높임이 실현되는군.

[13년 3월 학평 A형 13번] <보기>의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7)

<보 기>

점원 : 손님, 어떠 옷을 ㉠찾으십니까?

손님 : 셔츠를 좀 보려구요. ㉡저희 아버지께서 입으실 거거든요.

점원 : 이 셔츠는 어떠세요? 선물로 ㉢드리시면 무척 좋아하실 겁니다.

손님 : 저희 아버지는 ㉣어깨가 넓으신데 잘 맞을지 모르겠네요.

점원 : 그러시며 ㉤어르신을 모시고 한번 들러 주세요.

- ① ㉠ : '-니니까'라는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고 있다.
- ② ㉡ : '저희'라는 자신을 낮추는 어휘를 사용하여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③ ㉢ : '-시-'를 사용해서 선물을 주는 사람, '드리다'를 사용해서 선물을 받는 사람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 ④ ㉣ : '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그 신체의 일부가 주어로 올 때도 높임 표현을 쓰고 있다.
- ⑤ ㉤ : 높임을 나타내는 특정한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의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13년 6월 모평 B형 14번]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8)

<보 기>

높임법은 화자가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구분된다. 주체 높임법은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주체를 높이는 것이며, 상대 높임법은 대화의 상대인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고,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것이다.

동생 : 학교 다녀왔습니다.  
 누나 : ㉠**이제 오는구나**.  
 동생 : 누나밖에 없어? ㉡**아버지 안 계신 거야?**  
 누나 : 응, 너 저녁 안 먹었지? ㉢**아버지께 전화 드리고 얼른 나가자**.  
 동생 : 무슨 일인데?  
 누나 : ㉣**아버지께서 너 데리고 식당으로 오라셨어**. ㉤**할머니 모시고 저녁 먹으로 가자고 그러시더라**.

- ① ㉠은 '-는 구나'를 사용하여 상대인 동생을 높이고 있다.
- ② ㉡은 '계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③ ㉢은 '께'를 사용하여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④ ㉣은 '께서'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⑤ ㉤은 '모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13년 수능 B형 15번] 다음의 ㉠, ㉡이 모두 사용된 문장은 ? 29)

<보 기>

우리말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어말 어미나 종결 어미, 조사 등을 통해 높임을 표현하지만,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높임 표현에 쓰이는 어휘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주체를 높이는 용언 ([예] 계시다) ..... ㉠
- 객체를 높이는 용언 ([예] 드리다)
- 높여야 할 인물을 직접 높이는 명사 ([예] 선생님)
-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 ([예] 진지) .....㉡

- ① 나는 아직 그분의 성함을 기억하고 있다.
- ② 누나는 여쭙 것이 있다며 할머니 댁에 갔다.
- ③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는 홍시를 잘 잡수신다.
- ④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 ⑤ 어머니께서는 몹시 피곤하셨던지 거실에서 주무신다.

[14년 9월 모평 B형 13번] <보기>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30)

<보 기>

영 희 : 경준아, 선생님께서 다음 국어 시간에 있을 모둠 과제 발표는 내가 주도해서 ㉠**준비하**시라고 하셔.

경 준 : 시인 소개 모둠 과제 말이지?

영 희 : 응

경 준 : 그런데 어떤 시인을 주제로 발표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 ㉡**있으셨**나?>

영 희 : 아니, 그건 시간이 날 때 네가 직접 선생님께 ㉢**물어**서 알아봐.

경 준 : 아무래도 그래야겠어.

영 희 :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번 수업 시간에 김소월의 시가 ㉣**자**기의 애송시라고 ㉤**말**했잖아. 김소월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하니까 김소월의 시 세계를 주제로 하여 발표해 보는 건 어때?

- ① ㉠ : 주제가 '경준'이므로 '준비하라고'로 바꾸 말해야 한다.
- ② ㉡ : 주어가 '말씀'이므로 '있었니'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③ ㉢ : 뒷사람인 '선생님'께 묻는 것이므로 '여쭙서'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④ ㉣ : '선생님'을 높이는 것이므로 '당신'으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⑤ ㉤ : 주제가 '선생님'이므로 '말씀하셨잖아'로 바꿔 말해야 한다.

[05년 4월 고3 13번] <보기>의 내용으로 볼 때, '간접 발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31)

<보 기>

'직접 발화 행위'는 종결 어미와 그 기능을 일치시켜 화자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발화 방식을 말하며, '간접 발화 행위'는 종결 어미와 그 기능을 일치시키지 않고, 화자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발화 방식을 말한다.

<대 화 상 황>

"엄마, 다녀왔습니다."

"응, 그래. 늦었구나. ㉠**공부 열심히 했**니?"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데 웬 꼬리가 그리 기니? ㉡**문 좀 답**아라."

"아유 엄마, 나 바쁜데……."

㉢**"엄마도 바빠서 못 답**아요!"

"알았어요."

㉣**"아 참! 애, 일찍 학교 가야 하니 어서 씻고 자**렴."

"아니예요, 아침에 널 숙제가 두 개나 돼요. 아니, 아니지 또 있는데 뭐더라…….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열 두시가 넘었는데, 너무 늦**지 않았니?"

"하긴 그렇네요. 전화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09년 9월 모평 12번]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인용 발화로는 보기 어려운 것은 ? 32)

<보 기>

어떤 사람의 말을 남에게 전달하는 말을 인용 발화라 한다. 책, 신문, 방송과 같은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된 일을 전달하는 말도 인용 발화로 본다. 인용 발화는 대개 특수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 일단 발화와 구분되어 쓰이나, 간혹 일반 발화도 인용 발화의 형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 ① 지금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답니다.
- ② 어제는 열차가 30분이나 연착했답니다.
- ③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 ④ 어렸을 적에 저는 개구쟁이였답니다.
- ⑤ 그 나라 풍습은 정말 흥미롭답니다.

[13년 9월 모평 B형 14번] <보기 1>의 ㉠, ㉡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예를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 33)

<보 기 1>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에는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과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은 구체적인 담화 상황에 따라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데, 서술을 나타내는 경우, 감탄을 나타내는 경우, ㉡명령을 나타내는 경우 등이 있다.

<보 기 2>

-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상황
  - 선생님 : ㉠ 독서 모듬 활동은 언제, 어디에서 하면 좋겠니?
  - 학 생 : 3시부터 도서실에서 하면 좋겠어요.
- 늦잠 자는 아들을 깨우는 상황
  - 어머니 : 학교 늦겠어! ㉡ 그만 자고 열린 일어나지 못하겠니?
  - 아 들 : 엄마, 제발요. 조금만 더 잘래요.
- 두 학생이 함께 하교하는 상황
  - 학생 A : ㉢ 나랑 같이 문구점에 갈 수 있니?
  - 학생 B : 나도 연필 살 게 있었는데, 참 잘 됐다.
- 동생이 억울한 일을 겪은 상황
  - 언 니 : ㉣ 어쩜 이럴 수 있니?
  - 동 생 : 아, 정말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

- |     |   |
|-----|---|
| ㉠   | ㉡ |
| ① 가 | ㉢ |
| ② 가 | ㉣ |
| ③ 나 | ㉤ |
| ④ 다 | ㉥ |
| ⑤ 다 | ㉦ |

[14년 3월 학평 B형 15번] 아래의 글에서 <보기>의 ㉞와 ㉜가 모두 나타난 것은 ? 34)

<보 기>

응집성이란 담화를 이루는 발화나 문장들이 형식상 특정한 장치에 의해 연결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주로 지시 표현, 접속 부사 등과 같은 ㉞연결어에 의해 표현된다. 또한 유사한 어휘 또는 표현을 반복함으로써도 표현된다. 이 외에도 ㉜직접적으로 순서나 과정을 드러내는 어휘를 사용하기도 한다.

청소년 목공동아리 '목동'의 이번 활동은 연필꽃이 만들기입니다. ㉠먼저 디자인을 구상합니다. 다음으로 치수를 정합니다. 그리고 치수에 따라 나무를 자르는 재단이 끝나면 작업이 시작됩니다. 재단된 나무를 잘 배치해서 접착제로 붙입니다. ㉡우리 목동 친구들은 잘 아시죠? 접착제를 너무 많이 쓰면 접착제가 나무의 겉면으로 빠져 나와 굳잖아요. ㉢그러니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량만 발라줍니다. 접착제로 다 붙인 후에는 못을 자동으로 박는 목공 기구인 '타카건'으로 나무판들을 고정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 연필꽃이의 바닥까지 모두 조립하고 사포질을 해 줍니다. 사포질을 안 한 모서리에 찢리면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사포질을 할 때에는 나무의 결을 따라 하는 것이 보기에 좋습니다. 사포질을 마친 후에는 연필꽃이에 칠을 하거나 장식을 붙여 완성합니다.

[14년 6월 모평 B형 1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35)

탐 구 목 표	실제 담화를 분석하여, 화자와 청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탐 구 자 료	<p>[은미의 고모가 은미 집을 찾아온 상황]</p> <p>할머니 : 어서 와라. ㉠김 서방도 잘 지내지?          고 모 : 네, 엄마. ㉡그이도 잘 지내요. 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엄 마 : 네, ㉢아가씨. 배고프실 텐데 과일 좀 드세요.          고 모 : 고마워요, 언니. 은미야, 공부하느라 힘들지?          은 미 : 아니에요, ㉣고모. 고모부는 같이 안 오셨어요?          고 모 : 응, ㉤고모부는 다른 약속에 있어서 못 왔어.</p>
탐 구 결 과	(가)

- ① ㉠과 ㉡을 보면, 화자와 청자가 맞바뀌어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② ㉠과 ㉡을 보면, 청자는 같지만 화자가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③ ㉠과 ㉡을 보면, 화자도 다르고 청자도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④ ㉠과 ㉡을 보면, 화자는 같지만 청자가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⑤ ㉠과 ㉡을 보면, 화자가 달라 동일한 청자가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14년 7월 학평 B형 15번] <보기>의 ㉠ ~ ㉤에 나타난 심리적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36)

<보 기>

○ 어미를 사용하여 추정, 감탄, 단정, 확인, 의지, 전달 등의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드러낼 수 있다.

영희 : 너 오늘 산에 간다고 했잖아. 오늘 간 거 ㉠맞지?  
 철수 : 아니, 못 갔어. 내일은 꼭 가고 ㉡말겠어.  
 영희 : 그럼 너희 형은?  
 철수 : 아마 ㉢갔을걸. 아까 엄마 말씀이 ㉣갔다더라고.  
 영희 : 우와, 너희 형은 정말로 ㉤대단하구나.

- ① ㉠ : 확인
- ② ㉡ : 의지
- ③ ㉢ : 추정
- ④ ㉣ : 단정
- ⑤ ㉤ : 감탄

[10년 4월 학평 11번]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탐구한 내용 중, 바르지 않은 것은 ? 37)

<보 기 1>

- 한 주체가 하는 두 가지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
  - -고/고서 : 둘 이상의 동작을 할 때, 그 동작이 '나열'이나 '선후'를 나타냄
  - -며/면서 : 둘 이상의 동작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냄.

<보 기 2>

ㄱ. 잔칫집에 가서 고기도 먹고 떡도 먹었다.  
 ㄴ. 친구 집에 가서 못 다한 이야기를 실컷 하고서 왔다.  
 ㄷ. 너무 아파서 졸곤 울며/울면서 왔다.  
 ㄹ. 아이들은 함께 놀고, 공부도 하며, 잠도 함께 잔다.

- ① ㄱ의 '-고'는 두 동작을 나열할 경우에 사용하는군.
- ② ㄴ의 '-고서'에는 동작의 선후가 나타나는군.
- ③ ㄱ, ㄴ의 '-고/고서'는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하는군.
- ④ ㄷ은 '-며'를 쓸 자리에 '-면서'를 쓰더라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군.
- ⑤ ㄹ의 '-고'와 '-며'는 셋 이상의 동작을 나열하는 경우 모두 동시성을 나타내고 있군.

[13년 10월 학평 B형 15번] <보기>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38)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다. 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와 동작이 나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인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뉜다. 동작상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진행상과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표현하는 완료상이 있다.

어머니 : 방 정리를 ㉠하고 있구나.

아 들 : 네. 필요 없는 물건은 다 ㉡내놓았어요.

어머니 : 잘 했구나. 그런데 얼마 전에 ㉢산 책은 어디 있니?

아 들 : 아, 그 책은 이미 다 읽어서 동생에게 ㉣줘 버렸어요.

어머니 : 그래 잘 했다. 아침, 오늘 네 친구가 오기로 했다.

아 들 : 네, 조금 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할 친구가 오기로 했어요.

어머니 : 그래. 깨끗하 방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면 되겠구나.

- ① ㉠ : ‘-고 있구나.’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 ‘-았-’은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 ‘-니’은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 ‘-어 버렸어요’는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 ‘-르’은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10년 3월 학평 12번] <보기>의 ㉠의 경우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 39)

<보 기>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하는 것을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사동(使動)이라고 하며, 사동문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실현된다.

(가) 어머니께서 딸에게 색동옷을 입히셨다.

(나) 어머니께서 딸에게 색동옷을 입게 하셨다.

(가)에서는 ‘입다’에 접미사 ‘-히-’를 결합하여 사동을 실현하였으며, (나)에서는 ‘-게 하다’를 덧붙여 사동을 실현하였다. 그런데 (가)와 (나)는 의미 해석이 서로 다를 수 있다. ㉠ (가)는 딸이 스스로 입을 수 없어서 어머니가 직접 입혀 줬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 딸이 자신의 힘으로 색동옷을 입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후자의 뜻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

- ① 다정이는 찬물을 유리잔마다 가득 채웠다.
- ② 어머니는 나에게 밥을 먹이려고 상을 차리셨다.
- ③ 아버지는 진수에게 동생을 얹히고 앞서 걸으셨다.
- ④ 그녀는 이번 발표회를 위해 경미에게 발레화를 사서 신겼다.
- ⑤ 정원은 집에 초대한 친구들에게 졸업 앨범을 보여 주었다.

[11년 7월 학평 12번] <보기>의 '결다'를 피동으로 바꾼 예문으로 알맞은 것은? 40)

<보 기>

**결다**동사

- ① 벽이나 못 따위에 어떤 물체를 떨어지지 않도록 매달아 올려놓다.
- ② 자물쇠, 문고리를 채우거나 빗장을 지르다.
- ③ 기계 따위가 작동하도록 준비하여 놓다.
- ④ 어느 단체에 속한다고 이름을 내세우다.
- ⑤ 어떤 상태에 빠지도록 하다.

- ① '결다①': 그는 문단에 이름이 **결린** 작가다.
- ② '결다②': 그는 **결려** 있지 않은 문을 활짝 열었다.
- ③ '결다③': 나의 그림이 드디어 미술실 벽에 **결렸다**.
- ④ '결다④': 그는 최면에 **결린** 사람처럼 멍하게 서 있었다.
- ⑤ '결다⑤': 자동차의 시동이 **결리기**까지 시간이 꽤 흘렀다.

[13년 6월 모평 A형 13번] <보기>를 참고하여, 학습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옳은 것은 ? 41)

<보 기>

일반적으로 사동문은 주어가 다른 대상을 동작하게 하거나 특정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문장을 가리킨다. 사동문은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한 사동사나 어간에 '-게 하다'가 결합한 구성에 의해 만 들어진다.

[학습 자료]

	A : 주동문	B :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	C : '-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
㉠	동생이 숨는다.	누나가 동생을 숨긴다.	누나가 동생을 숨게 한다.
㉡	동생이 밥을 먹는다.	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인다.	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게 한다.
㉢	실내 온도가 낮다.	누나가 실내 온도를 낮춘다.	누나가 실내 온도를 낮게 한다.
㉣	동생이 공을 찬다.	해당 사례 없음	누나가 동생에게 공을 차게 한다.

- ① ㉠, ㉡을 보니, A의 주어는 C에서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나타나는군.
- ② ㉠, ㉢을 보니, A가 B로 바뀌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어 나는군.
- ③ ㉡, ㉣을 보니, A가 B로 바뀌면 겹문장이 되는군.
- ④ ㉡, ㉣을 보니, A의 서술어가 타동사이면 대응하는 사동사가 없군.
- ⑤ ㉢, ㉣을 보니, A의 서술어가 형용사이면 사동문을 만들지 못하는군.



[14년 3월 학평 A형 13번]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피동 표현을 만들어 보았다. 잘못된 것은 ? 42)

<보 기>

피동 표현은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에 의한 피동과 '-되다', '-게 되다', '-어지다'에 의한 피동이 있다. 이 외에 피동의 의미를 갖는 단어를 이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다.

- ① '아이가 밥을 먹었다.'를 피동 접미사 '-이-'를 사용하여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로 바꾸었다.
- ② '아이들이 꼬마를 놀렸다.'를 '당하다'를 사용하여 '꼬마가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다.'로 바꾸었다.
- ③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를 피동 접미사 '-히-'를 사용하여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로 바꾸었다.
- ④ '사람들이 생태계를 파괴하였다.'를 '-되다'를 사용하여 '생태계가 사람들에 의해 파괴됐다.'로 바꾸었다.
- ⑤ '박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다.'를 '-어지다'를 사용하여 '이 영화는 박 감독에 의해 만들어졌다.'로 바꾸었다.

[14년 6월 모평 A형 13번] <보기>의 ㉠, ㉡에 해당하는 것은 ? 43)

<보 기>

우리말의 용언 중에는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동일한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보다'는 사동사와 피동사가 모두 '보이다'로 그 형태가 같다. 이때 ㉠사동사로 쓰인 경우와 ㉡피동사로 쓰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문장에서의 쓰임을 통해 구별된다.

- 동생이 새 시계를 내게 **보였다**. (사동사로 쓰인 경우)
-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해가 **보였다**. (피동사로 쓰인 경우)

- ① ㉠ : 운동화 끈이 **풀렸다**.  
㉡ : 아빠의 칭찬에 피로가 금세 **풀렸다**.
- ② ㉠ : 우는 아이가 엄마 등에 **업혔다**.  
㉡ : 누나가 이모에게 아기를 **업혔다**.
- ③ ㉠ : 나는 젖은 옷을 햇볕에 **말렸다**.  
㉡ : 동생은 집에 가겠다는 친구를 **말렸다**.
- ④ ㉠ : 새들이 따뜻한 곳에서 몸을 **녹였다**.  
㉡ : 햇살이 고드름을 천천히 **녹였다**.
- ⑤ ㉠ : 형이 친구에게 꽃다발을 **안겼다**.  
㉡ : 아기 꿈이 어미 품에 포근히 **안겼다**.

[14년 4월 학평 A형 12번] 다음은 학교 홈페이지의 '질의 - 응답 게시판'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과제를 수행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44)

**[학생]** 오늘 문법 시간에 부정문에 대해 배웠는데, '아니(안), 못'이 쓰이면 짧은 부정문이고, '아니다, 아니하다(않다), 못하다'가 쓰이면 긴 부정문이라는 내용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의지 부정과 능력 부정, 상태 부정은 구분이 잘 안 돼요.

↳ **[선생님]** 의지 부정은 '안, 아니하다' 등을 사용하여 행동 주체의 의지가 작용할 수 있는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며, 능력 부정은 '못, 못하다' 등을 사용하여 행동 주체의 능력이나 그 외의 다른 외부의 원인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상태 혹은 단순 부정이란 '정확히는 키가 작지 않다.'와 같이 의지 부정이나 능력 부정이 아니라 단순히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 **[선생님]** 그리고 긴 부정문인 경우, 명령문에서는 '마/마라'를 사용하고 청유문에서는 '말자'를 사용합니다.

<보 기>

**[문법 과제]**  
'가다, 던지다, 먹다, 어둡다, 예쁘다'를 활용하여 다양한 부정문을 만들어 봅시다.

- ① '가다'를 사용하여 긴 부정문의 명령문을 만들면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마라.'가 됩니다.
- ② '던지다'를 사용하여 능력 부정의 긴 부정문을 만들면 '민지는 공을 던지지 못했다.'가 됩니다.
- ③ '먹다'를 사용하여 능력 부정의 짧은 부정문을 만들면 '나는 밥을 못 먹었다.'가 됩니다.
- ④ '어둡다'를 사용하여 상태 부정의 긴 부정문을 만들면 '하늘이 어둡지 않다.'가 됩니다.
- ⑤ '예쁘다'를 사용하여 의지 부정의 짧은 부정문을 만들면 '꽃이 안 예쁘다'가 됩니다.

[05년 4월 고3 13번] <보기>의 내용으로 볼 때, '간접 발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45)

<보 기>

'직접 발화 행위'는 종결 어미와 그 기능을 일치시켜 화자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발화 방식을 말하며, '간접 발화 행위'는 종결 어미와 그 기능을 일치시키지 않고, 화자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발화 방식을 말한다.

<대 화 상 황>

"엄마, 다녀왔습니다."

"응, 그래. 늦었구나. ㉠공부 열심히 했니?"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데 웬 꼬리가 그리 기니? ㉡문 좀 단아라."

"아유 엄마, 나 바쁜데……."

㉢"엄마도 바빠서 못 단아요!"

"알았어요."

㉣"아 참! 애, 일찍 학교 가야 하니 어서 씻고 자렴."

"아니예요, 아침에 널 숙제가 두 개나 돼요. 아니, 아니지 또 있는데 뭐더라……. 친구한테 전화 해서 물어봐야지."

㉤"열 두시가 넘었는데, 너무 늦지 않았니?"

"하긴 그렇네요. 전화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09년 9월 모평 12번]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인용 발화로는 보기 어려운 것은 ? 46)

<보 기>

어떤 사람의 말을 남에게 전달하는 말을 인용 발화라 한다. 책, 신문, 방송과 같은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된 일을 전달하는 말도 인용 발화로 본다. 인용 발화는 대개 특수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 일단 발화와 구분되어 쓰이나, 간혹 일반 발화도 인용 발화의 형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 ① 지금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답니다.
- ② 어제는 열차가 30분이나 연착했답니다.
- ③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답니다.
- ④ 어렸을 적에 저는 개구쟁이였답니다.
- ⑤ 그 나라 풍습은 정말 흥미롭답니다.

[13년 3월 학평 B형 14번] <보기>의 담화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47)

<보 기>



“다음은 뉴스입니다. 사랑의 온도계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사랑의 온도계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모금의 목표액을 온도계의 온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온도계의 온도가 아직 50°C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 ① 공적인 말하기와 사적인 말하기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
- ② 정보 제공의 기능을 가진 담화가 호소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 ③ 상세한 내용 제시 후 일반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담화 구조를 갖추고 있다.
- ④ 비문법적인 표현, 단어의 반복이 나타나는 구어 담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 ⑤ 1:1 소통을 통해 실시간 의견 교환이 가능한 매체 담화의 특성을 보여 준다.

[13년 4월 학평 A형 14번]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8)

<보 기 1>

실제 발화의 의미는 말하는 이, 듣는 이, 장면 등 담화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발화에서의 지시 표현은 시간적, 공간적 장면이 있어야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높임 표현도 구체적인 발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물들 사이의 상하 관계나 친소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확신이나 추정 등 말하는 이의 심리적 태도나 의도, 생략된 내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담화 맥락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보 기 2>

영희: 여기 있던 빵 누가 치웠어? (철수를 쳐다보며) ㉠ **내가 먹었지?**  
 철수: 아니, 내가 먹은 건 아니고 아까 희수가 배고프다고 해서 줬어.  
 영희: 아이고, ㉡ **참 잘하셨네요.**  
 철수: 그 빵이 네 빵이었어? 미안해. ㉢ **대신 이 과자라도 먹을래?**  
 영희: 그거? 그래, ㉣ **먹을래.** (과자를 먹다가 건네며) 근데 넌 배 안 고파?  
 철수: ㉤ **난 점심 먹었어.**

- ① ㉠: 영희의 행위를 고려할 때 ‘먹었지?’라는 표현은 어떤 사실에 대해 의심하면서 이를 확인하려는 심리를 전달한다.
- ② ㉡: 발화 상황을 고려할 때 ‘참 잘하셨네요.’는 표현된 진술과 발화의 의도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③ ㉢: 이어지는 영희의 반응을 고려할 때 ‘이’라는 지시 표현은 ‘과자’가 철수보다는 영희에게 가까운 위치에 있음을 나타낸다.
- ④ ㉣: 철수의 직전 발화 내용을 고려할 때 행위의 주체와 대상이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 과자를 건네는 영희의 행위와 마지막 물음에 담긴 의도를 고려할 때 제안을 거절하려는 철수의 심리가 담겨 있다.

정답표

- 1) ②
- 2) ⑤
- 3) ②
- 4) ②
- 5) ②
- 6) ④
- 7) ②
- 8) ④
- 9) ④
- 10) ④
- 11) ④
- 12) ④
- 13) ③
- 14) ②
- 15) ③
- 16) ③
- 17) ①
- 18) ②
- 19) ②
- 20) ④
- 21) ③
- 22) ④
- 23) ①
- 24) ④
- 25) ①
- 26) ④
- 27) ②
- 28) ⑤
- 29) ③
- 30) ②
- 31) ⑤
- 32) ①
- 33) ①
- 34) ④
- 35) ②
- 36) ④
- 37) ⑤
- 38) ③
- 39) ①
- 40) ②
- 41) ②
- 42) ①
- 43) ⑤
- 44) ⑤
- 45) ⑤
- 46) ①
- 47) ②
- 48) ③